

“부시맨의 양돈장”



김인호
(서울신약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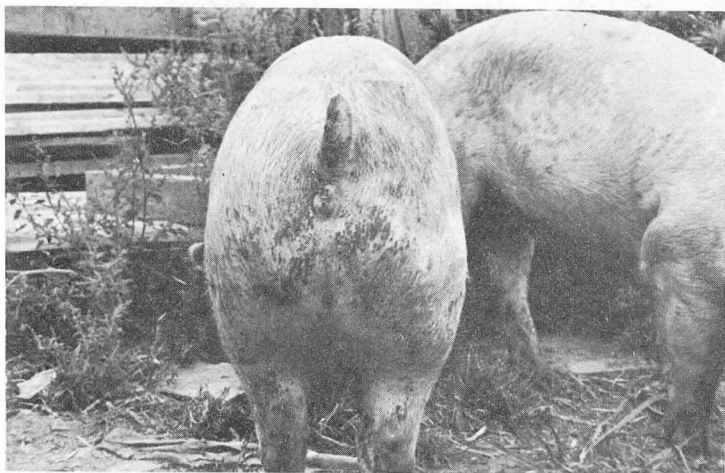
부시맨이 양돈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부시맨의 마음가짐에다 첨단과학이 곁들인 상태라면 두말할 나위없이 모두가 잘 사는 업태로 되어질 것 아니겠는가.

집단을 싸움없이 잘 살게끔 하기 위해, 소유욕을 불러 일으키는 원죄(原罪) 멍치인 빈병을 버리고자, 이 세상 끝까지 찾아 갈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본 받을만 하지만, 구석 구석 위험이 도사린 미지의 세계를 단신으로 가고자 한 용기 또한 우리의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다. 이는 곧 모두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해 낼 수 있는 자세가 아니던가. 이러한 자세의 반대편 쪽이라면, 소유욕을 한 없이 팽배시키기만 하는 험악한 세상이 될 것 아니겠는가.

양돈의 적정 사육규모를 정하는 면에서도, 자본규모나 수익목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부시맨 같은 공동체 개념의 자세가 아니라면,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애당초부터 양돈업에 뛰어들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공동체 개념없는 이기심(利己心)만 들끓게 되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1만두 이상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대기업 참여 금지조치는 다수를 살리는 면에서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대기업 참여가 금지되는 시점에서 양돈발전이 중단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다. 공동체 개념에서 걸림돌이 되는 무관심을 부시맨이 접했다면, 부시맨은 걸림돌을 버리기 위해 무관심 보따리를 싸들고 이 세상 끝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부시맨이 양돈업으로 규모를 확장해 가며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해 보라. 규모 확장으로 인해 집단이 위험한 지경으로 가도록 보고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가. 공동체를 위협한 지경에 빠뜨리는 모든 병목현상(소비·유통·수출·생산성·품종 문제 등등)이 이미 이 세상



농촌을 지키는 양돈농가도 즐기고 있다.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부시맨이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모두 잘 되려면 하루빨리 부시맨이 운영하는 양돈장의 운영 설계를 입수토록 해보자.

끝에 버려지고, 지금쯤 오손도손 모두가 만족해하는 업태로 되어졌을 것이다.

1인당 GNP문제만 해도 그러하다. 양돈업으로 GNP를 상회하는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농촌의 양돈농가 대다수가 마이너스 GNP소득을 기록하지 않았던가. 부시맨이 양돈장을 운영하는 시점이었다면 이 점도 그냥두지 않았을 것이다.

개개인의 우수성은 인정되나 모이면 모래나 자갈로 돌아 다닌다. 시멘트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지 못함이 아쉽다. 연간 복당 20두 출하기준으로 모든 규모당 수익이 월간 4만원선으로 보장되는 상황이 되도록 양돈인 모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

모든 규모당 4만원선 수익이 보장된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규모를 정하는 면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시설투자면에서도 되도록이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면이 고도의 전문성을 띄게끔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눈치전쟁을 하는 시대라면, 시설비는 적게, 건축자질도 단기간 내지는 임시방

편 쪽으로 연구되어지게 되고 만다.

부시맨이 양돈장을 꾸민다면 양돈인 전체가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감안된 표본설계를 작성하여 꾸미게 될 것이다. 그런 후로도 결코 후회없는 투자가 되도록 여건도 조성해 줄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600만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입지여건상 자연감소 현상은 예상되나, 시력 좋은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조명된 것이라 하니 그러려니 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부시맨이 양돈장을 운영하며 이 소식을 접했다면, 이 소식 뭉치를 버리려 이 세상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잘 사는 계획을 짜는데 왜 하필 농촌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수학계산식이 세워졌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다가 식량전쟁이라도 생기고 난 후 다시 농촌인구를 늘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농촌을 지키는 양돈농가도 즐기고 있다.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부시맨이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모두 잘 되려면 하루빨리 부시맨이 운영하는 양돈장의 운영 설계를 입수토록 해보자. **■**